

이슈페이퍼 2014-13

[www.kicce.re.kr](http://www.kicce.re.kr)

# ISSUE

## P A P E R

### 남성 대상 양육지원 사업 현황 및 강화 방안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차례

요약 .....	1
1. 연구 배경 및 방법 .....	1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나. 연구 방법 .....	2
2. 남성 대상 양육지원 사업 현황 .....	3
가. 여성가족부의 남성 대상 돌봄지원 사업 .....	3
나. 보건복지부의 아버지 양육참여 관련 사업 .....	4
3. 남성 대상 양육지원 사업 운영 현황 및 요구 .....	5
가. 서비스 기관별 실시 현황 .....	6
나. 운영 시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 .....	8
4.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수요 .....	10
가. 이용 실태 및 만족도 .....	10
나. 수요 .....	12
5. 정책 방안 .....	15
가. 기본 방향 .....	15
나. 세부 방안 .....	16
참고문헌 .....	19

## 표 차례

〈표 1〉 아버지 대상 양육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실시 여부 .....	6
〈표 2〉 대상별 아버지 교육 실시 현황 .....	7
〈표 3〉 대상별 아버지 참여 (놀이)체험프로그램 실시 현황 .....	7
〈표 4〉 아버지 교육 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 .....	8
〈표 5〉 아버지 교육 사업 개선 과제 .....	9
〈표 6〉 아버지 참여 (놀이)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애로사항 .....	9
〈표 7〉 아버지 참여 (놀이)체험프로그램 개선 과제 .....	10
〈표 8〉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용 횟수 .....	11
〈표 9〉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 이용 장소/이용 만족도 .....	12
〈표 10〉 부모교육/체험프로그램 이용 희망 장소 .....	15

## 그림 차례

[그림 1]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 이용 의향 .....	12
[그림 2] 아버지 교육 희망 참여 수준 .....	13
[그림 3] 체험프로그램 희망 참여 수준 .....	14

## 요약

- 여성에게 과중한 육아부담은 출산 기피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며, 영유아를 둔 아버지들은 아버지 역할 수행에는 자신감을 보이나 양육 기술이나 양육관련 정보는 미흡하다고 인식하므로 남성 대상 양육지원 서비스 강화가 요구됨.
- 남성 대상 양육지원 서비스 실시 대상을 살펴보면, 아버지 교육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업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유치원, 지역사회 순으로 높은 실시율을 보이며,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양 기관 모두 지역사회, 어린이집/유치원 순으로 나타남.
- 영유아를 둔 아버지들은 체험프로그램 이용율이 33.2%로 가장 높고, 육아정보제공서비스 이용 횟수가 평균 약 4.5회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남성 대상 양육지원 사업은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강화하되,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하며, 아버지 교육은 기업 위주로 최소 3회 이상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체험프로그램은 지역내 서비스 기관 위주로 전문 인력 및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4주 단위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함.

### 1. 연구 배경 및 방법

####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출산에 따른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된 현상은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됨(대한민국 정부, 2011:27).
-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혼 남성의 가족돌봄 시간은 하루 평균 14분으로 여성의 55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문은영·서영주·최나리, 2011:22~24).

- 최근 서울시의 기혼남성 대상 연구에 의하면, 남성이 수행하는 육아활동은 주로 '놀이하기'에 한정되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을 여성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문은영·서영주·최나리, 2011:58).
- 2013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여성이 6만 7,323명, 남성이 2,293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거나,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은 3.3%로 10년 전인 2003년(1.5%)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통계청, 2014:29).
- 영유아를 둔 아버지들은 양육 시 어려움 및 스트레스 대처와 아버지 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높은 반면,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와 양육 기술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인식하므로 남성 대상 양육지원 서비스 강화가 요구됨(유해미·정주영·양유진, 2013:106).
- 일·가정 양립지원 내실화를 위해서는 남성의 양육 참여에 주목하여 양성평등적 돌봄 문화를 실현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남성의 양육 참여 확대는 저출산 대응 이외에도 남성의 부모권 보장, 아동 발달, 부부 관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지님.
- 이 연구에서는 남성 대상 양육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를 파악하여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sup>1)</sup>.

## 나.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남성 대상 양육지원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세부 사업의 추진 실적을 살펴봄.
- 설문조사
  - 전국 지역의 영유아를 둔 아버지 1,083명을 대상으로 남성 대상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수요를 파악함.
  - 서비스 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 108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자 50명을 대상으로 남성 대상 양육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 및 개선 요구를 파악함.

1) 이하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 2013년도 일반과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의 자녀양육 지원 실태와 개선 방안'(유해미·정주영·양유진)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함.

## 2. 남성 대상 양육지원 사업 현황

-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문화 형성 차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06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남성의 자녀 돌봄 확대 사업과,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2008년부터 추진 중인 아버지 육아 관련 각종 홍보 및 행사 개최 현황을 살펴봄.

### 가. 여성가족부의 남성 대상 돌봄지원 사업

-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을 강조하는데, 제1차 계획(2006~2010)에서는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제2차 계획(2011~2015)에서는 가족 가치의 확산 차원에서 추진됨.
  - 제2차 계획의 특징은 보편적 가족 가치와 가족 위기 예방 및 역량 강화 차원에서 가족 가치의 확산을 주요 과제로서 부각한 점으로, 아버지 가족생활 참여 교육의 전국적 확산을 도모함.
  - 2006년과 2007년에는 아버지 교육이 추진되었고, 2008년에는 가족친화문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남성 대상 교육은 주로 공공기관, 기업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3:32).
  - 2010년부터 가족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패밀리데이, 2011년부터는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토요일프로그램이 정착됨(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3:19).
  - 각 세부 사업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남성 대상 교육 프로그램
  - 남성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2006년부터 매년 확대·실시되고 있음.
    - 교육 내용은 일·가정 양립 중요성, 가족친화제도 등이며, 교육 시간은 연간 2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됨.

- 2012년 기준 가족교육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총 10,225회기(참석 인원 367,105명)가 진행되었으며, 이들 중 남성 대상 교육은 총 2,123회(참석 인원 59,655명)로 전체의 약 21%를 차지함(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3:65).<sup>2)</sup>
- 아버지 교육 사업은 전국 총 147개소 센터 중 91.2%인 134개소에서 실시하였음.

□ 아버지 - 자녀가 함께 하는 돌봄 프로그램

- 아버지 - 자녀가 함께 하는 토요일 돌봄 프로그램은 주 5일제 수업의 전면 실시에 따라 해당 시간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2012년 기준 104개소에서 실시됨.
- 사업 대상은 유아 또는 초등학생 자녀와 아버지이며, 자녀 돌봄과 품앗이, 상담 등 다양한 활동과 연계하여 토요일 2시간 이상, 연간 24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됨(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3:105).

□ 가족 참여 프로그램

-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중 남성의 참여가 가능한 가족 단위의 문화서비스 내용으로는 가족사랑의 날 운영, 가족 여가 문화 활동, 축제 및 행사 등을 들 수 있음.
- 참여 대상은 지역내 모든 가족이며, 가족사랑의 날은 매주 수요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월 1회, 연간 2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됨(여성가족부, 2013b:32).

## 나. 보건복지부의 아버지 양육참여 관련 사업

□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사업 등

- 보건복지부는 2008년에 5월에 가정의 날을 맞아 남성의 자연스런 양육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을 위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관으로 '아빠 놀이왕 대회'를 개최함(보건복지가족부, 2008:1~2).

2)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3,483회,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2,127회, 남성 대상 교육 2,123회, 자녀 대상 교육 940회로 나타나며, 전체 참여 인원 중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106,781명,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57,915명, 자녀 대상 교육 90,698명, 남성 대상 교육 59,655명의 순임(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3:65).

- 2011년에는 남성의 가정내 육아 참여를 확대하여 여성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예비 또는 초보 아빠를 위한 육아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보급함(보건복지부, 2011a:1).
  - 2011년 8월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아빠들이 동참하는 육아 참여 비법을 공개하여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게 유도함(보건복지부, 2011c:1).
    - 같은 해 11월과 12월 양일에 걸쳐 임신·출산 문화강좌 ‘마더하세요’를 개최함(보건복지부, 2011d:1).
  - 2011년 9월에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00인의 아빠단’ 발대식을 개최함(보건복지부, 2011b:1).
  - 2012년 3월에는 오프라인을 통해 보다 많은 아빠들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더하세요’ 블로그 내용을 자료집(100인의 아빠단)으로 발간함(보건복지부, 2012:1~3).
  - 2013년에는 민간 기업<sup>3)</sup>의 후원으로 총 10회에 걸쳐 800가족을 무료로 초청하여 ‘웃는 아빠 캠프’ 개최 계획을 수립함(보건복지부, 2013a:1).
    - 같은 해 4월에는 매주 토요일에 ‘예비 엄마와 아빠가 마음을 더하는 임신·출산 주말 강좌’를 개최함(보건복지부, 2013b:1).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육아지원사업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내 영유아 대상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정보 및 상담, 놀이공간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됨(보건복지부, 2014:423).
  - 이에 따라 향후 영유아를 둔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 제공 기관으로 주목할 만함.

### 3. 남성 대상 양육지원 사업 운영 현황 및 요구

- 남성 대상 양육지원 서비스를 수행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3년 기준 기관별 사업 운영 현황과 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를 파악한 바는 다음과 같음.

3) 기업은행, 한국감정원, 블랙야크 등(보건복지부, 2013a:1)

## 가. 서비스 기관별 실시 현황

### □ 전반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94.4%가 아버지 교육을, 64.8%가 아버지 참여 (놀이) 체험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됨.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버지 교육과 아버지 참여 (놀이)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히 28%였고, 48%는 추진 중인 사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1> 아버지 대상 양육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실시 여부

구분	단위: %(명)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버지 교육	94.4	28.0
아버지 참여 (놀이) 체험프로그램	64.8	28.0
기타	14.8	14.0
추진 중인 사업 없음	1.9	48.0
사례수	(108)	(50)

### □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 아버지 교육 실시 현황을 대상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역사회가 6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어린이집/유치원 57.8%, 기업체 32.8% 순으로 조사됨.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65.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유치원 54.9%로 나타난 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유치원 78.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 64.3% 순이며, 특히 기업체의 실시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임.
- 대상별 교육시간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지역사회 약 28.6시간, 어린이집/유치원 약 19.8시간인 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해당 시간은 각각 2.6시간과 3.1시간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임.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아버지 교육이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됨.

〈표 2〉 대상별 아버지 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회, 시간

구분	실시율	(수)	총 참석 인원 (표준편차)	총 회차 (표준편차)	교육시간 (표준편차)
전체	32.8	(38)	126.6(227.74)	5.0(13.27)	5.7( 19.16)
기업체	36.3	(37)	129.5(230.16)	5.1(13.43)	5.9( 19.41)
	7.1	( 1)	1.0	1.0	1.0
어린이집 /유치원	57.8	(67)	111.4(149.31)	4.4( 4.21)	17.0( 59.55)
	54.9	(56)	116.2(157.48)	4.7( 4.41)	19.8( 64.86)
	78.6	(11)	86.8( 99.68)	3.0( 2.79)	3.1( 3.65)
지역사회	65.5	(76)	89.2(124.51)	4.7( 5.83)	25.5(116.79)
	65.7	(67)	89.1(128.01)	5.0( 6.10)	28.6(124.17)
	64.3	( 9)	90.0(100.75)	2.3( 2.29)	2.6( 1.51)

주: 2013년 7월말 기준임.

총 참석 인원과 총 회차는 기관 당 평균이고, 교육시간은 1인당 평균임.

□ 아버지 참여 (놀이)체험프로그램

- 아버지 참여 (놀이)체험프로그램 실시율을 대상별로 살펴보면, 지역사회가 7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어린이집/유치원 35.7%로 나타남.
- 기업의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시율도 21.4%에 불과함.

〈표 3〉 대상별 아버지 참여 (놀이)체험프로그램 실시 현황

단위: %, 명, 회, 시간

구분	실시율	(수)	총 참석 인원 (표준편차)	총 회차 (표준편차)	참여 시간 (표준편차)
전체	19.0	(16)	127.3(290.35)	3.8( 4.85)	2.3( 2.65)
기업체	21.4	(15)	135.1(298.51)	2.7( 2.26)	2.3( 2.74)
	7.1	( 1)	20.0	1.0	2.0
어린이집 /유치원	35.7	(30)	88.3( 82.08)	5.8(10.73)	12.6( 38.26)
	37.1	(26)	97.9( 83.85)	4.2( 3.30)	13.7( 41.06)
	28.6	( 4)	25.8( 22.78)	16.0(29.34)	5.5( 4.76)
지역사회	73.8	(62)	118.8(111.88)	7.1(11.35)	26.2(121.75)
	75.7	(53)	122.5( 13.16)	7.7(12.09)	30.0(131.46)
	64.3	( 9)	96.7(107.54)	3.7( 4.06)	3.6( 4.22)

주: 2013년 7월말 기준임.

총 참석 인원과 총 회차는 기관당 평균이고, 교육 시간은 1인당 평균임.

## 나. 운영 시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

### 1)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 아버지 교육 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모두에서 1순위 기준으로 '남성의 자발적 참여 유도 어려움'이 각각 42.5%와 45.5%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임.
-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업 대상 기업체 모집 어려움'이 64.2%를 나타내어 기업체 섭외 시 고충을 알 수 있음.

〈표 4〉 아버지 교육 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

단위: %(명)

구분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다양한 자녀 연령으로 타겟 선정 어려움	3.8	12.3	4.5	13.6
사업 대상 기업체 모집 어려움	34.0	64.2	9.1	9.1
기업주의 필요성 인식 부족	7.5	28.3	4.5	18.2
지역 주민 대상 홍보 부족	2.8	6.6	4.5	4.5
사업 예산 부족	6.6	8.5	18.2	27.3
담당 인력 부족	1.9	9.5	0.0	4.5
사업 운영시간을 확보 어려움	0.9	7.5	13.6	40.9
사업 운영 지침 미비	-	0.0	-	4.5
남성의 자발적 참여 유도 어려움	42.5	62.3	45.5	77.3
기타	-	0.9	-	0.0
계(수)	100.0(106)	-	100.0(22)	-

- 아버지 교육 사업의 개선 과제로는 양 기관이 다소 상이한 입장을 보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는 사업 홍보 강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는 정부 지원체계 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참여 기업체 대상 정부 인센티브 강화와 사업 홍보 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6.4%와 29.2%로 가장 높은 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정부 지원체계의 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7.3%와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8.2%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아버지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됨을 말해줌.

〈표 5〉 아버지 교육 사업 개선 과제

단위: %(명)

구분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참여 기업체 대상 정부 인센티브 강화	26.4	45.3	27.3	31.8
사업 홍보 강화	29.2	50.0	9.1	18.2
기관 필수(기본)사업 지정	13.2	20.3	13.6	36.4
프로그램 내실화	3.8	12.5	18.2	31.8
기업주의 인식 전환	12.3	28.9	4.5	13.6
정부 차원 사업 지원체계 강화	10.4	36.7	22.7	54.5
사업 운영 지침 마련	0.0	0.0	4.5	9.1
사업 실무진 교육 강화	3.8	5.7	0.0	4.5
기타	0.9	1.9	0.0	0.0
계(수)	100.0(106)	-	100.0(22)	-

## 2) 아버지 참여 (놀이)체험프로그램

- 아버지 참여 (놀이)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애로사항으로는 아버지 교육 사업과 마찬가지로 양 기관 모두에서 남성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어려움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인 가운데, 아버지 교육에 비해 주요 타겟 선정의 어려움과 담당 인력 문제가 큰 것으로 지적됨.
-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사업 대상 기업체의 모집 어려움에 이어 사업 예산 부족이 12.3%로 나타나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업 운영 시간 부족 18.2%, 사업 예산 부족 13.6% 순임.

〈표 6〉 아버지 참여 (놀이)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애로사항

단위: %(명)

구분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다양한 자녀 연령으로 타겟 선정 어려움	6.6	20.8	13.6	18.2
사업 대상 기업체 모집 어려움	17.9	30.2	0.0	0.0
기업주의 필요성 인식 부족	3.8	17.0	4.5	9.1
지역 주민 대상 홍보 부족	3.8	12.3	4.5	13.6
사업 예산 부족	12.3	22.6	13.6	27.3
담당 인력 부족	6.6	14.2	4.5	13.6
사업 운영시간 확보 어려움	6.6	23.6	18.2	50.0
사업 운영 지침 미비	0.9	0.9	0.0	0.0
남성의 자발적 참여 유도 어려움	41.5	56.6	40.9	68.2
기타	-	1.9	-	0.0
계(수)	100.0(106)	-	100.0(22)	-

〈표 7〉 아버지 참여 (놀이)체험프로그램 개선 과제

단위: %(명)

구분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참여 기업체 대상 정부 인센티브 강화	20.8	39.6	18.2	18.2
사업 홍보 강화	34.9	62.3	9.1	13.6
기관 필수(기본)사업 지정	7.5	14.2	9.1	27.3
프로그램 내실화	6.6	13.2	22.7	54.5
기업주의 인식 전환	11.3	25.5	0.0	0.0
정부 차원 사업 지원체계 강화	12.3	33.0	31.8	68.2
사업 운영 지침 마련	1.9	3.8	9.1	13.6
사업 실무진 교육 강화	2.8	6.6	0.0	4.5
기타	1.9	1.9	0.0	0.0
계(수)	100.0(106)	-	100.0(22)	-

- 아버지 참여 (놀이)체험프로그램의 개선 과제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는 사업 홍보 강화 34.9%, 참여 기업체 대상 정부 인센티브 강화 20.8%, 순으로 나타난 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정부 차원 사업 지원체계 강화 31.8%, 프로그램 내실화 22.7% 순으로 나타남(표 7 참조).
- 그 밖에도 참여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는 양 기관에서 약 18~21%의 응답율을 나타내어 주목할 지점이라고 판단됨.

#### 4.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수요

- 영유아를 둔 아버지들 대상으로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 이용 의향, 이용 경험 그리고 적정 시행 수준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 이용 실태 및 만족도

###### 1) 이용 경험 여부 및 이용 횟수

- 각 프로그램별 이용율을 살펴보면, 가족체험프로그램이 33.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육아정보 제공 28.0%, 아버지 교육 22.8% 순이며, 육아 상담은 13.8%로 저조한 수준을 보임.
- 평균 이용 횟수는 육아정보 제공 약 4.5회, 가족체험프로그램 약 3.6회, 아버지 교육과 육아상담이 공히 약 3회를 나타냄.

- 자녀 연령별로 살펴보면, 프로그램별 차이를 보임.
- 가족체험프로그램의 이용율은 3세아 이상에서 4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아버지 교육은 2세아와 3세아 이상에서 각각 28.1%와 26.4%를 나타냄.

〈표 8〉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용 횟수

단위: %(명), 회

구분	이용 경험		이용 횟수					평균	계(수)
	있음	전체(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가족체험프로그램	33.2	100.0(1,083)	33.1	25.8	17.8	23.3	3.65	100.0(360)	
아버지 교육	22.8	100.0(1,083)	47.8	29.2	9.3	13.8	3.03	100.0(247)	
육아상담	13.8	100.0(1,083)	45.6	24.8	11.4	18.1	3.03	100.0(149)	
육아정보 제공	28.0	100.0(1,083)	39.1	20.5	12.9	27.5	4.53	100.0(302)	

- 위의 프로그램 이용 실태에 의하면, 가족체험프로그램의 경우는 1세 이하 자녀부터 활발히 이용되며, 아버지 교육은 자녀가 2세 이후에 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비 부모와 출산 직후 아버지 대상 교육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 이용 장소 및 만족도

-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 이용 장소를 살펴보면, 가족체험프로그램과 아버지 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이 각각 41.9%와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가족체험프로그램의 경우는 사회복지관 16.9%, 육아종합지원센터 13.5%, 주민자치센터 12.9% 순이며, 아버지 교육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18.6%, 사회복지관 16.2% 순으로 나타남.
- 가족체험프로그램의 경우는 기관별 만족도의 차이를 보임.
-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06점(만점 5점)으로 가장 높고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만족+매우 만족)은 78.1%인 반면, 주민자치단체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평균 3.28점에 그침.
- 아버지 교육의 경우는 기타 응답을 제외하면, 가족체험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만족도가 평균 3.84점(만점 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이외 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유사한 수준임.

〈표 9〉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 이용 장소/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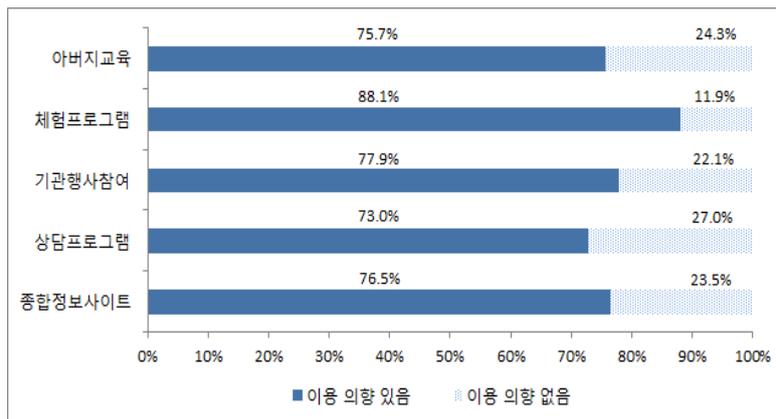
구분	이용 장소							이용 만족도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유치원	기타	(수)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균	(수)
체험프로그램	13.5	9.0	16.9	12.9	41.9	5.9	(356)	9.7	48.3	36.1	4.7	1.1	3.61	(360)
아버지 교육	10.5	12.6	16.2	18.6	32.4	9.7	(247)	13.4	47.0	34.0	5.3	0.4	3.68	(247)
육아상담	21.5	18.8	20.8	17.5	19.5	2.0	(149)	6.7	36.9	47.0	8.1	1.3	3.40	(149)
육아정보제공	25.5	10.6	12.9	19.2	24.2	7.6	(303)	5.3	40.3	46.9	6.6	1.0	3.42	(303)

주: 평균은 각 항목에 대해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육아상담의 경우는 서비스 기관별로 만족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사회복지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만족도가 각각 평균 3.61점과 평균 3.5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표 9 참조).
- 육아정보제공 서비스의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만족도가 이외 기관들에 비해 높아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1.9%(평균 3.84점, 만점 5점)인 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이외 기관들은 유사한 수준의 만족도를 보여 평균 약 3.3점~3.4점임.

나. 수요

1) 이용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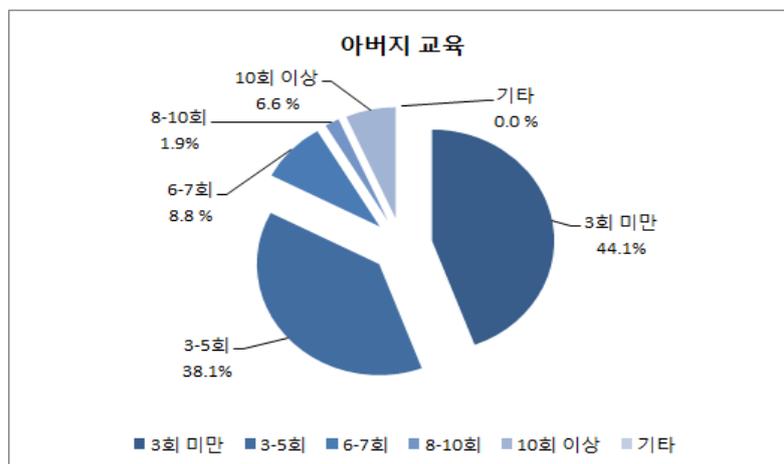


[그림 1]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 이용 의향

- 각 프로그램별 이용 의향을 살펴보면, ‘자녀와 함께 하는 (주말)체험프로그램 (이하 체험프로그램)’이 88.1%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임(그림 1 참조).
  - 그 다음으로는 ‘기관 행사 참여’ 77.9%, ‘아버지 역할 수행 관련 종합정보 사이트(이하 종합정보사이트)’ 76.5%, ‘아버지 교육’ 75.7%, ‘아버지 역할 수행 관련 상담프로그램(이하 상담프로그램)’ 73.0%로 조사됨.
- 프로그램별 이용 의향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선호하는 프로그램에서 일부 차이를 보임.
  - 20대 아버지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참여 의향이 낮은 가운데, 특히 체험프로그램과 기관 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1.4%와 53.8%로 낮은 관심도를 보임.
  - 30대 아버지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이며, 특히 체험프로그램과 기관 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9.4%와 79.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 적정 시행 수준

- 프로그램별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적정 시행 수준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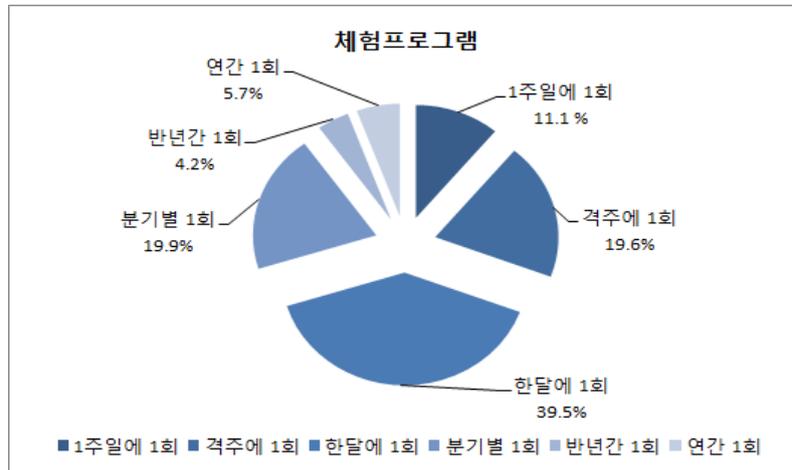
[그림 2] 아버지 교육 희망 참여 수준

□ 아버지 교육

- 3회 미만 44.1%, 3~5회 38.1%로 나타나므로 1인당 아버지 교육의 총 실시 회기는 최소 3회 이상을 고려할만함(그림 1 참조).

□ 체험프로그램

- 희망 참여 수준은 한 달에 1회 39.5%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분기별 1회 19.9%, 격주에 1회 19.6%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체험프로그램 실시 빈도는 한 달에 1회를 고려하되, 지역 수요에 따라 격주 또는 1주일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안을 모색함.



[그림 3] 체험프로그램 희망 참여 수준

□ 기관 행사 참여

- 분기별 1회가 34.2%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다음으로는 한 달에 1회 22.7%, 반 년간 1회 17% 순으로 조사됨.
- 기관 행사 참여는 앞서 다른 체험프로그램이나 아버지 교육에 비해 아버지들의 선호도가 낮으므로 기관 행사에 아버지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

### 3) 희망 서비스 기관

- 부모교육과 가족체험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이용하고 싶은지를 각각 질문한 결과, 기관 선호도는 유사한 경향을 보임.
- 양 프로그램 모두에서 집 근처 공공기관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여 해당 응답율은 각각 32.9%와 33.5%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부모교육은 자녀가 다니는 기관 29.3%, 지역내 복지시설 24.2%, 직장/회사 20.6% 순이며, 체험프로그램은 자녀가 다니는 기관 29.8%, 지역내 복지시설 25.9%, 지역내 공공기관 22.9% 순으로 조사됨.
- 아버지 교육과 각종 체험프로그램의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는 일차적으로 지리적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기관들의 적극적인 활용과 서비스 연계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10〉 부모교육/체험프로그램 이용 희망 장소

	부모교육	가족체험프로그램
집 근처 공공기관	32.9	33.5
자녀가 다니는 기관	29.3	29.8
지역내 복지시설	24.2	25.9
직장/회사	20.6	16.5
지역내 공공기관	19.5	22.9
기타	0.3	0.3
계(수)	100.0(1,007)	100.0(1,029)

단위: %

주: 집 근처 공공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임.  
 자녀가 다니는 기관은 '유치원, 어린이집'을 의미함.  
 지역내 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 등'임.  
 지역내 공공기관은 '주민자치센터 등'임.

## 5. 정책 방안

### 가. 기본 방향

- 남성 대상 돌봄지원은 일관된 방향성을 요하며, 가족문화적 차원보다는 일·가정 양립지원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양성평등적 돌봄 문화의 형성을 통해 남성의 부모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여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
-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아버지 참여 (놀이)체험프로그램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되나, 아버지 교육에 비해 추진 실적이 미흡하므로 일차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기관으로 아버지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모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이외 서비스 기관들간의 연계를 강화함.
- 이와 동시에 영유아 육아지원사업 확대가 예상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남성 대상 양육지원 서비스를 강화함.

## 나. 세부 방안

- 서비스 인프라 확충
  - 서비스 기관으로 본인의 직장 보다는 지역내 기관을 선호하므로 각종 프로그램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접근성 보장이 중요함.
    - － 지리적 접근성은 수요자 특성 즉 영유아를 둔 부모의 경우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영유아를 둔 아버지들의 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확충 및 관련 사업 강화가 요구됨.
    -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사업 현황 조사에 의하면, 남성 대상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48%에 달함.
    -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사항에 기본 사업으로 명시함.
  - 지역내 서비스 실시 기관인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국에 15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 중 111개소만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비 지원 대상 기관의 확대가 요구됨.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외에 사회복지관 등 지역내 유관 기관에 남성 대상 양육지원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 함.
    - － 지자체 담당 부서는 당해 년도의 지역내 남성 대상 양육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서비스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주말 운영 의무화

- 아버지들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는 현실적으로 주말에만 가능한 실정이므로 토요일 운영을 의무화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도록 권고함.
- 토요일프로그램 운영 시에 전문 인력을 배치함.

□ 서비스 인력 양성체계 구축 및 전문성 강화

- 아버지 교육의 경우는 강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시되므로 각 지역 센터의 사업 수행 시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도록 강사풀을 구축하고 이를 지역내 서비스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체험 등 가족 단위 프로그램의 담당자와 실무진을 대상으로 매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함.

□ 주요 사업 대상의 차별화

- 지역내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으로 수요가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일정 참여 비율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함.
  - 아버지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재혼 가구, 입양 가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사업 대상 기관은 아버지 교육의 경우는 기업체, 체험프로그램의 경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추진함.
- 사업 대상 아동 연령은 서비스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아버지 교육 사업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아부터 유아까지로 확장함.

□ 프로그램 내실화

- 아버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일회성 교육을 지양하고, 심화 교육과정 위주로 운영함.
  -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버지 교육의 희망 참여 수준은 3회 미만 44.1%, 3~5회 38.1%로 나타나므로 3회기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모색할만함.
  - 교육 방식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과 타인의 아버지 역할 수행에

- 대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아버지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규모 모임을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임.
- 교육 대상은 단지 남성에 한정하지 않고,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남성의 자녀 양육 참여 시에 아내가 협력하도록 함.
  - 교육 평가는 참여 인원 위주의 실적 평가를 지양하여 대상별 심층적 접근을 확산함.
- 체험프로그램은 영유아의 특성과 남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담당 인력의 지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인력과 적정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상시 운영함.
- 지역내 서비스 기관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상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함.
  -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체험프로그램의 희망 참여 수준은 한 달에 1회가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 4주 단위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할만함.

## 참고문헌

- 대한민국 정부(2011). 2011-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문은영·서영주·최나리(2011). 서울시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활성화 방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2008.5.6). 5월 가정의 달, ‘아빠 놀이왕’에 도전하세요.
- 보건복지부(2011a).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1.13). 아빠라서 행복해요, 예비/초보 아빠의 육아 노하우를 한 자리에.
- 보건복지부(2011b).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8.29). 아이와 놀아주며 마음을 더하세요! 마더하세요.
- 보건복지부(2011c).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9.5). 엄마 힘내세요! 100인의 아빠단 총출동.
- 보건복지부(2011d).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11.11). 아빠들 마음을 더하세요, 마더하세요.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3.16). 육아 달인 아빠 따라해 보세요!
- 보건복지부(2013a).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3.23). 아빠 어디 가? 웃고 싶은 아빠 모두 모여라.
- 보건복지부(2013b).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4.12.). 아빠가 궁금한 출산과 산후 우울증에 대한 모든 것.
- 보건복지부(2013c).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4.12.). 아빠가 궁금한 출산과 산후 우울증에 대한 모든 것.
-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13b). 2013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 유해미·정주영·양유진(2013).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의 자녀양육 지원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통계청·여성가족부(2014).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3). 2012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사업실적보고서.